

# “3기 신도시 내 국토·LH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 실시하라”

### LH 직원들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문 대통령, 정부에 조사 지시

### “국무총리실 지휘… 위법 사항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

### 민주 이낙연 대표 “LH 직원 땅 투기했다면 국민 배신… 가담자 색출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명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가지 사항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 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했다.

아울러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총리께서 어제 (광명, 시흥 등 해당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

이번 조사를 총리실이 지휘하도록 지시한 이유에 대해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가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감사원과 (정부가) 합동으로 (조사를) 하면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며 “우선 총리실이 1차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객관성, 엄정성을 담보하고, 감사원이 추가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갈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총리께서 어제 (광명, 시흥 등 해당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

했는데, 대통령은 (조사 대상 지역을) 3기 전체로 확대 지시하고 조사 대상 범위도 넓히도록 지시했다”며 “철저히 진상규명해 투기를 엄단한다는 의지를 보이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이라 함은 산하기관, 자회사 등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전직 근무자까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조사를 하다가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핵심 관계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사장 재직시절 투기 의혹이 발생한 데 대해 “(변 장관에게) 제기된 책임론은 관리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변창흠표 공급책은 차질 없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에 엄정한 조사 통해 리더십과 신뢰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등원해 사익을 챙기려 한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LH는 토지분양,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정보를 다루는 공기업이다. 그런 만큼 임직원에게는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면, 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집 없는 서민의 절망은 커질 수밖에 없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투기 가담자들을 철저히 색출해 엄단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열린민주 김의겸 의원직 승계 ‘논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진에 열린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3일 국회를 찾았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김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그제 밤 김 의원으로부터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실감이 안 났다. 여러분 앞에서 비로소 실감이 난다”며 “현직 국회의원에서 단원화를 위해 이렇게 의원직을 흔쾌히 내려놓은 건 헌정사상 처음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넘어서는 것이 객관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전에 나선 것은 민주개혁 세력, 범여권의 승리를 위해 불쏘시개가 될지언정 한 몸 던질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며 김 의원을 추켜세웠다. 이어 “앞으로 2주 또는 3주 동안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논의에 집중 조명이 쏟아질 텐데, 김 의원과 박 후보의 긴장감 높은 토론을 통해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며 “김진애를 뚫고 나간 박영선과 김진애를 돌아서간 박영선은 전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변인은 국회에 입성해 ‘언론 개혁’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사대적 과제가 언론 개혁이므로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서울시에 인착시키고 김 전 대변인이 국회에서 언론 개혁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8일까지 의원직 승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 유치 행보 계속된다’

### 민주 김수홍 의원, 선풍식품 등에 이어 CJ제일제당 등 찾아 기업유치 행보 나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갑)이 3일 충북 진천군(군수 송기섭)과 음성군(군수 조병욱)을 연이어 방문하고, 해당 지역의 유수의 기업들을 방문, 기업유치를 위한 행보를 벌였다.

김수홍 의원은 연초부터 두산그룹 방문을 시작으로, 아산시의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 창원시의 두산중공업과 태림산업 등 기업들을 연이어 방문하고 있다.

최근에는 선풍식품(주)(대표 박진선)을 방문해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를 강력하게 요청한 김 의원은 다음 행선지로 충청북도도 선택했다.

이날 김 의원은 가장 먼저 진천군을 방문해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과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진천군은 5년 연속 1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인

당 GRDP(지역내총생산) 9,183만원으로 9년 연속 충북도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진천군은 합계출산률(1.426명)과 학령인구비율(12.8%)도 도내 1위를 기록하는 등 생동하는 젊은 도시로 탈바꿈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진천군의 변화된 모습은 다른 낙후된 도시가 배우고 지향해야 할 모델로 손색이 없다”며 “함께 상생하는 미래를 위해 기꺼이 노하우를 전수해준 진천군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진천군을 나선 김 의원은 송두산업단지(K-푸드밸리)에 입주해 있는 CJ제일제당을 방문해 분양률이 60%대에 머물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음성군청으로 달려

가 기업유치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진 후, 음성군 대동산단에 입주한 바이오기업인 (주)한독에 방문해 투자협력을 요청했다.

음성군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산단 조성에 총력하고 있으며, 최근 금왕테크노밸리에 쿠광물류센터, 네네치킨, 대한제분, 진성푸드 등 대기업 및 중견기업 유치에 성공해 경기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김수홍 의원은 “기업의 입장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경영진의 생각을 직접 물어보면서 투자유치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길이다”며 “아무리 어려워도 진심을 다해 두드리면 기업유치의 길도 열릴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업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진천군을 나선 김수홍 의원은 송두산업단지(K-푸드밸리)에 입주해 있는 CJ제일제당을 방문해 분양률이 60%대에 머물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 ‘기업 유치, 새만금이 최적’

**개발청, 중소기업 대상 특별 토론회 참가**

**새만금 투자환경 소개**

**‘글로벌 네트워크 보유’ 중국건설은행 국내법인과 상호협력 위한 MOU 체결**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한국중국상회와 중국건설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시장의 기회 및 국제 위안화 전망’ 특별 토론회에 참가해 새만금의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중국건설은행 한국법인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국건설은행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글로벌 RE100 기업인 통지(글로벌 태양광웨이퍼 제조사), 위안정(글로벌 풍력발전기 제조사) 등 베이징, 홍콩, 한국 소재 중국 기업 대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새만금청은 차별화된 새만금만의 투자 경쟁력을 비롯해 ‘한국판 K-뉴딜’과 연계해 추진 중인 RE100 스마트 그린산단,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협력지구),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등 핵심 전략 산업 현황을 설명하고, 참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단지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로 RE100이 구현되는 스마트 그린산단과 함께 그린



왼쪽부터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전민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대표. <사진=새만금 개발청 제공>




수소 클러스터를 구축 중이고 아울러, 미래형 모빌리티 융복합클러스터와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새만금청은 중국건설은행과 새만금 내 중화권 기업의 투자촉진과 입주지원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국건설은행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국 기업유치에 힘을 모으

기로 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우수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투자유치 역량을 보유한 중국건설은행과의 협력은 새만금의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와 한중 협력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 “주한 중국대사관, 주한중국상회 등과 협력해 중국 기업이 새만금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주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